

# ‘승운 없는’ KIA 김도현, 화력 지원 절실하다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T전 2경기 호투에도 2패 그쳐  
오늘 ‘4할 5명’ 강타선 상대하고  
주말 SSG 원정 등 두 차례 등판  
김호령·박찬호 공·수 역할 중요

선발 김도현의 표정에 KIA의 순위가 달라진다. KIA 타이거즈는 17일부터 KT 위즈를 상대로 홈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이어 인천으로 건너가 SSG 랜더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마운드 스타트를 끊는 김도현에 시선이 쏠린다. 로테이션상 두 경기를 소화하는 데다 올해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어서 김도현의 표정에 따라 KIA의 성적도 달라질 전망이다. KIA는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를 만났던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타선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승률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삼성 좌완대를 만난 10일 단 한 점도 내지 못하고 0-8 영봉패를 당했던 KIA는 11일에는 상대의 실수로 얻은 기회를 살리면서 6-3 승리를 거뒀다. 분위기를 잊지는 못했다. 12일 경기에서 1-2 지면서 삼성전 루징 시리즈를 남겼다. 11개의 안타를 기록하고도 단 1점밖에 뽑아내지 못하면서 기록한 쓴 패배다. NC와의 첫 대결도 패배였다. 비가 내리면서 9회까지 승부를 하지 못하고 1-4, 5회 강우콜드패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 김도현이 17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승리 도전을 하고 있다. 올 시즌 두 차례 KT를 상대로 김도현은 6이닝 2실점을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되는 등 2패만 기록하고 있다.

이후 두 경기에서는 홈런으로 KIA가 승리를 만들었다. 14일에는 1회초 오선우의 선제 스리런이 터졌고 9회초 김규성의 솔로포가 나왔다. 9-4로 앞선 9회 말 무사 1·2루에서 투입된 정해영이 박건우에게 만

루포를 맞은 것을 생각하면 김규성의 솔로포는 1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15일에는 베테랑 최형우가 3회 1사 1·2루에서 로건을 상대로 시즌 11호포를 날리면서 4-2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주에는 윤도현이 수비 도중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는 등 야수진의 줄부상 속 예측 불허의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김도현도 KIA의 화력에 올고 있다. 김도현은 올 시즌 KT를 상대로 두 경기에 나와,

2패만 기록하고 있다. 4월 16일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경기는 0-3 패배로 끝났다. 5월 30일에는 5이닝 3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이 경기에서도 KIA는 1-3패를 기록했다. 김도현이 나온 KT전 두 경기에서 KIA는 ‘1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올 시즌 13경기(74.1이닝)에서 평균자책점 3.15를 찍은 김도현의 성적은 2승 3패. 팀 타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도현은 KT의 무시무시한 타선과도 싸워야 한다. KT의 ‘무서운 신인’ 안현민이 지난주 0.476의 타율로 주간 타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현민을 필두로 이호연(0.474), 김상수(0.455), 이정훈(0.438), 배정대(0.400) 등 지난주 KT에서 5명이 4할 타자가 됐다. KIA에서는 김호령이 눈길 끄는 타자였다. 김호령은 2개의 2루타를 포함해 6개의 안타를 만들면서 0.353의 타율을 기록했다. 팀 내 주간 타율 1위다. 이범호 감독의 조연으로 타격 스탠스와 타이밍에 변화를 준 김호령은 달라진 타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정적인 타격을 위해 ‘예비 FA’ 박찬호와 최원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 박찬호는 주말 NC와의 3연전에서 연속 멀티히트에 성공하는 등 5안타를 기록하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최원준은 지난주 15타석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다. 불ետ으로 출루한 경우도 한 차례에 그쳤고, 6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했다. 발 빠른 박찬호와 최원준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KIA의 승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한 주 김도현이 ‘불운’에서 벗어나 승수를 더할 수 있을지, 김호령이 상승세를 이어 KIA 화력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지금부터 시작...반전의 여름 만들겠다”

### KIA 첫 4시즌 연속 10홀드 전상현

더워지자 구위도 점점 살아나  
더 과감하고 자신있게 던질 것

팬들에게 편안한 저녁을 선물하고 싶은, 전상현의 바람이다. KIA 타이거즈는 야수진의 부상과 불펜진의 부진이 겹치면서 시즌 초반부터 순위 싸움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안했던 출발에 운도 따르지 않으면서 우승 동력이었던 불펜은 부침의 시간을 보냈다. 가장 꾸준하게 불펜을 지켜왔던 전상현에게도 올 시즌은 유난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려던 시점에서 종아리에 타구를 맞기도 했고, 빗맞은 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안함이 컸던 전상현은 지난주 그래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삼성과의 홈경기가 펼쳐진 11일 7회 무사 1·3루에 등판해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와 함께 시즌 10번째 홀드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0홀드를 이뤘다. 리그 15번째이자 구단 첫 기록이다. 전상현은 “날이 더워지면서 구위가 시즌 초보

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 좋아진 것 같다. 지금부터 시작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전상현은 구위와 함께 ‘자신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전상현은 “땀이 났을 때 안 풀리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마운드 내려올 때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자존감이랑 자신감을 높이려고 했고, 구위도 그렇고 결과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닝을 책임졌던 곽도규와 장형식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던 KIA 불펜은 성영택이라는 새 전력을 더해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선발진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전상현은 ‘안정감’을 목표로 반전의 여름을 노린다. 전상현은 “내가 처음에 안 좋으면서 불펜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즌 초보다는 다들 좋아진 상태다. 안정감이나 내 모습을 찾아야 팀에 도움이 된다”며 “초반에 많이 까먹었던 것을 만회하고 있다. 날 더 더워질 것이니까 체력적인 부분 신경 쓰고, 더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겠다. 남들이 봤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 최혜진, LPGA 첫 우승 좌절...마이어 클래식 준우승

### 선두에 1타 뒤져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300만달러)에서 준우승했다. 최혜진은 16일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 필즈 컨트리클럽(파72·661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최혜진은 선두에 1타 뒤진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우승은 16언더파 272타의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우승 상금은 45만달러(약 6억1000만원)다. 시간다는 2016년 로레나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8년 7개월 만에 투어 3승을 달성했다.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에서도 통산 8승을 거둔 1990년생 시간다는 2022년 지은희(당시 36세) 이후 최고령 LPGA 투어 최고령 챔피언이 됐다.



최혜진이 16일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 필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16년 마이어 클래식 연장에서 김세영에게 패했던 시간다는 그때 아쉬움을 약 9년 만에 털어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1승을

따내고 2022년 LPGA 투어에 진출한 최혜진은 첫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2, 3라운드를 공동 1위로 마쳤고, 이날도 16번 홀(파4)까지 1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으나 17번 홀(파4) 티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위기에 놓였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시간다가 1타 차 2위였던 17번 홀 두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으로 보내 최혜진을 압박했다. 최혜진 역시 세 번째 샷을 홀 약 1.5m 거리로 보내 파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파 퍼트가 홀을 맞고 나오면서 이 홀에서 버디를 잡은 시간다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최혜진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시간다와 버디로 비기면서 2022년 8월 캐나다여자오픈 이후 2년 10개월 만의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최혜진은 비회원 자격으로 2017년 US여자오픈, 2018년 호주여자오픈, 2020년 빅오픈 등 세 차례 준우승한 바 있다. 2017년 US여자오픈은 아마추어로 출전한 대회였다. /연합뉴스

## 한국 여자배영 ‘1분벽’ 허물다

이은지, 광주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 59초56 ‘한국신’

한국 여자배영 간판선수인 이은지(18·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사진)가 광주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은지는 15일 광주시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4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혼계영 400m 결승에서 배영 구간을 59초56에 주파해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네 명의 선수가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대로 100m씩 맡아서 경기하는 단체전인 혼계영 400m에서 첫 여자(배영)의 구간기록은 국제연맹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종전 한국 기록은 이은지가 2021년 5월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동메달 입상 당시 기록한 1분00초03이다. 자신의 기록을 0.47초 앞당긴 이은지는 “1분 벽을 허물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력해왔다”며 “드디어 59초대에 진입해서 정말 기쁘다. 응원 해주신 모든 분의 격려가 떠올라서 울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2년과 2023년 두 번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이은지는 올해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지 않고 생애 첫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앞뒀다. 이은지는 이날 한국 기록 경신에 따라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체중 송채연(왼쪽 두번째)이 박소민, 이혜진, 이세연과 함께 '2025 여자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단체종합 2위를 차지했다. <광주체중 제공>

## 광주체중 송채연, 아시아기계체조 ‘단체 은’

### 여자주니어 단체 종합 2위

광주체중 송채연이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대회에서 단체 종합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끝난 ‘2025 여자 기계체조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주니어 단체 종합에서 한국은 137.696점을 얻으며 2위에 올랐다. 1위는 152.897점을 받은 일본이 차지했다. 송채연은 박소민(합포중), 이혜진·이세연(이상 서울체중)과 함께 여자주니어 대표팀으로 출전해

홍콩(137.029점)과의 접전 끝에 은메달을 확정지었다. 송채연은 이단평행봉과 평균대 종목별 결승에 진출했으나 이단평행봉은 11.300점으로 5위에, 평균대는 11.266점으로 7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23개국 6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남자 6개 종목(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 여자 4개 종목(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을 시니어와 주니어로 나눠 진행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